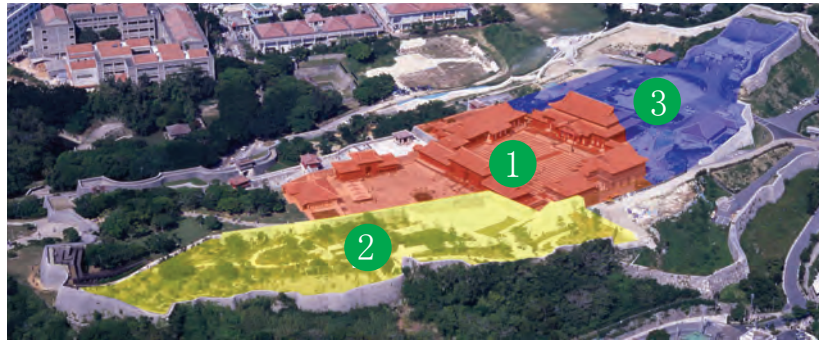


# 슈리성 완성예상도

정비된 슈리성 앞으로의 건설예정

슈리성은 역할에 따라 크게 3 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 
 정전 1층과 남전·변소, 북전·서원(쇼인)·사수노마 등 어정(우나)이라고 불리는 광장을 중심으로 정치와 외교가 이루어진 「행정 공간」.  
 그리고 신앙상의 성역에 있는 성안에서도 가장 신성한 성지로 칭송되는 「제사의 공간」.  
 또한 국왕과 그 가족이 사는 오우치바라라고 불린 「생활·의례 공간」입니다.  
 아래 사진은 슈리성의 완성 예상도입니다.



① 행정공간 ② 제사공간 ③ 생활·의례 공간

※ 는, 미 개원 구역입니다



※완성 이미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봉신문
- 우에키몬
- 숙순문
- 황금어전 기만
- 아가리노아자나
- 정전
- 세과전
- 백은문
- 침묘전
- 어정(우나)
- 남전·변소
- 킨주우쯔메쇼
- 오쿠쇼인
- 미복문
- 계세문
- 서원(쇼인)·사수노마와 정원
- 이층 어전

## 오우치바라 드러나는 「오우치바라」의 모습

정전의 동쪽 일대는 「오우치바라」라고 불리웠고 국왕과 그 친족, 그곳에서 시종드는 많은 여성들이 사는 남성금지 장소였습니다. 정전을 경계로 서쪽은 정치며 외교를 중심으로 한 「바깥」 세상이었던 것에 비해, 이곳은 여성이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, 말하자면 「안쪽」의 세계였습니다. 그럼 「오우치바라」의 각 건조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**슈쿠준문 (숙순문)** 국왕과 그 가족을 모시는 궁녀들이 「오우치바라」에 들어갈 때 사용 하던 통용문입니다. 별칭 「오나카우쇼」.

**쿠가니우둔 (황금어전)** 「황금어전」에는 국왕과 왕비의 거실과 침실이 있었고 유인치(수라간) 「수라간」에서는 국왕의 진지가 조리되었습니다.

**킨주우쯔메쇼** 국왕과의 만남을 중개하는 신하가 대기하고 있던 장소로서, 남전(난텐), 황금어전, 오쿠쇼인을 연결하는 건물이었습니다.

**오쿠쇼인 (안쪽서원)** 오쿠쇼인은, 은둔지적인 건축 공간이며, 오쿠쇼인 정원과 일체가 되어 휴식 장소로서 귀중한 장소였던 것으로 상정됩니다.

**신묘텐 (침묘전)** 국왕이 승하한 후 그 시신을 잠시 안치하는 곳.

**아가리노아자나 (동쪽 망루)** 성 동쪽에 건축된 망루로써 슈리성일대며 멀리 성 아래까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.

**니케이우둔 (이층어전)** 국왕이 일상생활을 하던 거실로서 복도를 통하여 「정전」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.

**비후쿠몬 (미복문)** 「오우치바라」로 통하는 입구의 하나로서, 「계세문(케이세이몬)」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곳이 성의 동문이었습니다. 처음에는 아카타에 접해 있었고 하여 「아카타우쇼」라고 불리었습니다.

**케이세이몬 (계세문)** 평상시에는 통용문이었지만 국왕이 승하하면 성 밖에 사는 대를 이을 왕자가 이 문을 지나 입성하여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.

**요호코리텐 (세과전)** 국왕이 돌아가시면, 다음 왕의 즉위식이 거행된 곳. 평상시에는 미혼의 공주의 침실로 사용되었습니다.

**하쿠긴몬 (백은문)** 「침묘전」으로 통하는 정문으로서, 국왕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. 별칭 「시로가네우쇼」.